

□ 2021년 2월 27일 시행 경기 의료직 생물 기출문제 분석

단원	문항 수	비율
I 분자와 세포	4문제	20%
II 유전학	6문제	30%
III 진화생물학	1문제	5%
IV 생물다양성	1문제	5%
V 동물의 구조와 기능	6문제	30%
VI 식물의 구조와 기능	2문제	10%
VII 생태학	0문제	0%

이번 2월 27일 시행한 경기의료직 생물 문제의 난이도는 **2020년 11월에 시행된 문제보다 쉬웠으며, 출제범위도 어느 특정 단원에 편중되지 않고 생태학을 제외한 전 단원에서 아주 이상적으로 골고루 출제**되었습니다.

약간의 아쉬움이 있다면 체질에 관한 문제에서 환형동물과 척추동물이 모두 정답이 되는 복수 정답이 있는 문제가 있었고, 염색체 지도에 관한 문제에서 교차율의 오류를 범한 문제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수험생들의 기억으로 복원된 것이지만 교차율이 분명히 $a \sim b : 40\%$, $a \sim d : 18\%$, $b \sim c : 12\%$, $c \sim d : 12\%$ 로 분명히 출제 되었다면 정답이 없으므로 모두 정답 처리를 해야 합니다.

2020년 6월 서울과 2020년 11월 경기에서 유전체 각인-후성유전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2021년 2월 경기에서 또 후성유전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유행이 된다는 것을 강의시간에 제가 강조하면서 최근의 기출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입증되었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어느 한 내용도 하이클래스 생물 개념교재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융털의 상피세포에서 킬로미크론의 세포외 배출작용”이나 “최근에 발견된 식물의 호르몬인 스트리고락톤”과 같은 내용은 하이클래스 생물 개념교재에 그대로 서술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하이클래스 개념교재를 충분하게 소화했다면 매우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생물 공부를 시작하는 수험생들은 개념도 중요하지만 기출문제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고 모의고사로 출제되는 난이도 있는 문제들도 익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개념도 확실하게 정리하면서 문제풀이도 충실하게 해야겠습니다.

항상 수험생들의 건승과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